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33호(97/9/20)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07. P. 2.



07. P. 3.

<만평으로 보는 해프닝으로 끝난 추석전 전·노 사면>

인권영화제 난관을 헤치고 27일 개막

인권영화제가 드디어 오는 9월 27일부터 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렵게 치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문체부, 안기부, 경찰, 구청 등이 인권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상영장소로 교섭된 홍익대학교와 기독교연합회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공연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공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8월말까지만 해도 동국대 개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모든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동국대 총장의 불허 방침이 전해지고, 그후 추석 전까지 상영장소 교섭을 위해 뛰어다니다 겨우 두 곳을 볼색할 수 있었습니다. 상영관을 두 곳을 택한 것은 워낙 상영장소가 불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곳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표현의 자유와 몇몇 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19일부터 열리기로 했던 '퀴어 영화제(동성애 영화제)'가 구청의 불허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심의거부의 원칙을 지켜가며 인권영화제를 치루겠다는 것은 이 나라의 답답할 정도로 꽉 막힌 인권현실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험난한 길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영장소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영화제는 기필코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는 관객들을 만나 볼 것입니다.

이제 포스터와 전단 등 홍보물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고, 후원회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파도처럼 몰아치는 다수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운영·자문위원 여러분!

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확산을 위한 소중한 인권교육의 장입니다.

이 사업에 적극적인 동력이 되어 주십시오.

1. 주위 분들에게 영화제를 적극 홍보하십시오.
2. 주위 분들에게 후원할 것을 적극 권유하십시오. 후원 방법은 1만원 이상을 영화제 구좌로 입금한 후 영화제 사무국(전화: 741-2407, 741-536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해설책자와 소식지를 보내드리며, 상영기간중 우선 입장의 권한이 부여되며, 광고 게재시 이름을 명기합니다.
3. 운영·자문위원은 1인당 5만원 이상씩 후원하도록 합시다. 이번 영화제 성사를 위해 특별 성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4. 영화제 상영기간에 적극 관람하십시오. 상영작품들은 영화제외에는 접하기 힘듭니다. 가급적 많은 영화를 관람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자원봉사하실 뜻은 없습니까? 영어, 불어, 일본어 등의 어학능력으로, 또는 재정조직, 홍보 등에 자원봉사할 뜻은 없으십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영화제 구좌번호>

국민 822-21-0276-824(예금주 서준식) 농협 033-02-119388(예금주 서준식)

제일 110-20-342272(예금주 서준식)

제 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품

* 이 영화들은 세계 곳곳의 인권현실과 투쟁을 담고 있는 두툼한 인권교과서입니다. 그동안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엄선한 작품들로 앵콜작 두편을 빼고는 모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것들입니다. 자세한 작품 내용은 이후 발간되는 영화 해설서를 참고하십시오. 해설서는 작품평과 더불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인권상황에 대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총 24편이며, 이중 극영화는 7편입니다.

<갈릴리에서의 결혼 >

프랑스·팔레스타인/1987/미셸 클레이피 감독/116분/극영화

-한쌍의 젊은이의 결혼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억압자와 피억압자, 구세대와 신세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을 그린다.

<눈물의 사슬>

영국/토니 스트라스버그 감독/52분/다큐멘터리

-1980년대, 모잠비크와 앙골라 내전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어린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

<델타포스>

영국/1995/글렌 엘스 감독/52분/다큐멘터리

-나이지리아 군사정권과 다국적 기업의 결탁. 살인적인 환경파괴! 이에 맞서다 1995년에 사형 당한 켄 사로 위와의 삶과 투쟁

<레드헌트>

한국/1997/조성봉 감독/67분/다큐멘터리

-제주 4·3항쟁 당시의 '빨갱이 사냥'. 1948년에 인구 27만의 제주에서 3만에서 8만에 이르는 주민이 죽었다.

<루치아>

쿠바/1969/움베르토 솔라스 감독/161분/극영화

-'루치아'라는 이름의 여인들이 각각 3편의 에피소드 주인공이 되어 쿠바 현대 민중사, 여성사를 그려낸다. 고전적 명작.

<르완다 대학살>

캐나다/1996/다니엘 라코세·이반 패트리 감독/164분/다큐멘터리

-르완다, 1994년 봄, 무려 50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죽어갔다. '르완다 대학살'에 관한 모든 기록.

<명성, 6일의 기록>

한국/1997/김동원 감독/74분/다큐멘터리

-1987년 6월항쟁의 기록제가 되었던 6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관한 기록.

<미나마타>

일본/1971/쓰찌모토 노리아키 감독/120분/다큐멘터리

-일본의 전형적인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베를린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다큐멘터리의 고전.

<바이 바이 바브시카>

미국/레베카 프레그 감독/75분/다큐멘터리

-평범한 여성들에게 소련이란 무엇이었는가? 처녀 시절에 러시아혁명을 겪고 소련체제를 살아온 할머니들의 이야기.

<브라질 예비뉴>

브라질/1989/옥타비오 베제라 감독/79분/다큐멘터리

-브라질 수도 리오데자네이로의 일상을 무작위로 취재. 브라질을 지배하는 암울함을 진솔하게 드러내 보인다.

<사랑해요>

한국/전승일 감독/8분/애니메이션

-그림 그리기를 통해 양심수를 생각하는 어린이의 마음.

<새의 노래>

볼리비아/1994/우카마우 집단/117분/극영화

-선주민에 대한 백인지배를 영화화하기 위해 선주민 마을에 온 영화집단, 그러나 그들은 선주민 문화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곤경에 빠진다. 우카마우집단의 '자전적' 작품.

<쇼아>

프랑스/1985/끌로드 랑즈만 감독/545분/다큐멘터리

-2차대전 당시 나치는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죽음의 수용소를 회고하는 유대인들의 충격적인 증언집.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미국/1991/니시아마 마사히로 감독/91분/다큐멘터리

-일본의 유명한 요업도시 시가라키에서 당당하고 밝게 살아가는 106명의 지체장애인들의 삶을 담았다

<양 도살자>

미국/1977/찰스 버넷 감독/87분/극영화

-황폐한 흑인사회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양 도살 노동자의 삶. 그의 직업은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규정한다. 흑인영화의 고전.

<어떤 쿠바 난민들>

쿠바/1994/에스텔라 브라보 감독/57분/다큐멘터리

-80년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향한 많은 쿠바난민들은 그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소외당한다. 다시 쿠바로 송환당하는 이들의 슬픈 현실을 담았다

<유토피아를 찾는 사람들>

아르헨티나/데이비드 발렌스타인 감독/145분/다큐멘터리

-쿠데타로 무참하게 깨진 아르헨티나 민주화운동. 공포의 탄압을 살아남은 자들의 솔직하고 가슴아픈 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

<외투>

한국/여균동 감독/10분/극영화

-양심수 강용주 (현재 복역중)와 그의 어머니의 소망. 1996년 민가협 '시와 노래의 밤'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것.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일본/1987/하라 카즈오 감독/122분/다큐멘터리

-패전을 앞둔 남양군도, 일본군은 인육(人肉)을 먹었다! 천황의 전쟁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칼날같은 사나이.

<퓨마의 딸>

과테말라/1994/울프 헬트버그 감독/85분/극영화

-1982년 과테말라 군사정권에 의한 마야족 대학살을 세계에 고발, 노벨평화상(1992)을 받은 리고베르타 멘추 여사의 투쟁을 드라마로 본다.

<호남호녀>

대만/1995/후 샤오시엔 감독/108분/극영화

-<비정성시>, <희몽인생>에 이은 대만 현대사 3부작의 완결판. 1950년대의 '백색테러'가 남긴 대만의 깊은 상처.

<히틀러와 아브라함>

프랑스/캐서린 텔리어 감독/26분/다큐멘터리

-라이베리아에서는 6천명의 어린이 병사들이 싸우고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전쟁터에 내몰리는 아이들.

<유령을 부르며> (제1회 인권영화제 앵콜작품)

미국/1995/매디 제이콥스, 카멘 켈린칙 감독/60분/다큐멘터리

-보스니아전쟁의 과정에서 대규모로 여성에게 가해진 성적 학대는 계획적으로 자행될 '무기'였다.

<하비밀크의 시대> (제1회 인권영화제 앵콜작품)

미국/1984/로버트 엘스타인 감독/87분/다큐멘터리

-게이 운동가로서 샌프란시스코 시정감시관에 당선된 하비 밀크는 전통사회의 완강한 편견에 부딪쳐 목숨을 잃는다. 그의 이름은 소수자, 약자의 챔피언으로서 역사에 기억된다.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

* 이 상영 일정은 9월 20일 현재 상황에서 짜여진 것입니다. 장소 사정에 따라 상영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9월 25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되는 광고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흥익대학교

9월 27일(토)

<와우관>

개막식 2:00

1회 3:00 새의 노래

2회 6:0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3회 8:10 사랑해요/외투

4회 8:30 바이바이 바브시카

<O관>

1회 3:00 양도살자

2회 5:00 르완다 대학살

3회 8:30 퓨마의 딸

<Z관>

5:00 쇼아1

9월 28일(일)

<와우관>

1회 2:00 호남호녀

2회 4:30 명성, 6일의 기록

3회 6:30 히틀러와 아브라함

4회 8:00 루치아

<O관>

1회 4:30 델타포스

2회 6:30 레드헌트

3회 8:00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Z관>

1회 2:00 미나마타

2회 4:30 쇼아2

9:00 쇼아 강연회

29일(월)

<O관>

1회 5:00 유령을 부르며

2회 7:00 하비밀크의 시대

<Z관>

1회 5:00 어떤 쿠바 난민들

2회 7:0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9월 30일(화)

<O관>

1회 5:00 브라질 예비뉴

2회 7:30 명성 6일의 기록

3회 9:00 델타포스

<Z관>

1회 5:0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2회 7:30 루치아

10월 1일(수)

<O관>

1회 5:00 갈릴리에서의 결혼

2회 7:30 르완다 대학살

<Z관>

1회 5:00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2회 8:00 눈물의 사슬

10월 2일(목)

<O관>

1회 5:00 퓨마의 딸

2회 7:30 바이바이 바브시카

3회 9:00 레드헌트

<Z관>

1회 5:0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2회 7:30 어떤 쿠바 난민들

10월 3일(금)

<O관>

1회 2:00 미나마타

2회 4:00 호남호녀

3회 7:00 히틀러와 아브라함

4회 8:00 새의 노래

<Z관>

1회 2:00 외투/사랑해요

2회 2:30 브라질 예비뉴

3회 4:30 끌로드 란쯔만과 서준식의 인터뷰/쇼아1

10월 4일(토)

<와우관>

1회 2:00 양도살자

2회 4:00 눈물의 사슬

3회 5:00 갈릴리에서의 결혼

폐막식 7:00

<Z관>

2:00 쇼아2

2. 기독교 연합회관

9월 29일(월)

<대강당>

1회 5:30 새의 노래

2회 8:0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9월 30일(화)

<대강당>

1회 5:00 외투/사랑해요

2회 5:30 바이바이 바브시카

3회 7:00 양도살자

4회 9:15 눈물의 사슬

<중강당>

5:00 쇼아1

10월 1일(수)

<대강당>

1회 5:30 르완다 대학살

2회 8:30 호남호녀

<중강당>

5:30 쇼아2

10월 2일(목)

<대강당>

1회 5:00 미나마타

2회 7:30 루치아

<중강당>

1회 5:00 명성 6일의 기록

2회 6:30 어떤 쿠바 난민들

3회 8:00 히틀러와 아브라함

4회 8:30 퓨마의 딸

10월 3일(금)

<대강당>

1회 5:00 브라질 예비뉴

2회 6:30 레드헌트

3회 8:00 갈릴리에서의 결혼

10월 4일(토)

1회 4:3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2회 6:30 델타포스

3회 7:30 유토피아를 찾는 사람들

* 이 상영 일정은 흥익대에서 모든 작품을 2회, 기독교연합회관에서 1회씩 상여토록 짜여졌습니다.

사 / 업 / 보 / 고

(97년 8월 셋째주부터 9월 둘째주까지)

사무국 영화제에 전격 결합

사무국은 1주일 앞으로 닥친 영화제의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번역, 자막작업, 홍보, 재정확보 사업 등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일상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는 뒤로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소 불편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사회복지학과 실습생 6명

2학기 사회복지학과 실습생이 9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나와 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 숭실대, 중앙대 등에서 온 이 학생들은 여름방학 실습 때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을 받고 사랑방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에서 인권교육

박래군 사무국장과 류은숙 교육실장은 지난 8월 23, 24일 이틀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에서 4시간씩 총 8시간 동안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류실장은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역사 등을, 사무국장은 한국인권운동사와 인권현실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또, 사무국장은 9월 9일 군산연합 주최로 열린 인권학교에서 '인권의 이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연구 모임 제안

지난 8월 25일 열린 인권협 집행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관심있는 이들로 연구모임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임은 인권협이나 개별

단체들이 후원하여 국가보안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하는 모임으로 참가하는 개인의 자율적인 모임으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이 모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단체에서 파악, 오는 9월 29일의 집행위원회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들 중에서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무국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권협 대선기획팀이 계획했던 9월 6일 대선 관련 내부 토론회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다음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발길 이어져

최근 들어 사랑방에 자원활동을 원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제 관련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사랑방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자 찾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명(서울대 법대) 학생은 이미 여름부터 매일 인권하루소식에 결합했고, 학기 중인 요즘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나와 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박의영씨도 8월 말부터 인권자료실을 돕고 있고, 버클리대 한국위원회 출신의 선후배인 최윤미, 최태환씨도 8월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대 인도어과 1학년생 4명이 1주일에 한번 꼴로 나와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22일부터는 회사를 그만 두고 인권운동에 뜻을 둔 나혜숙씨가 자원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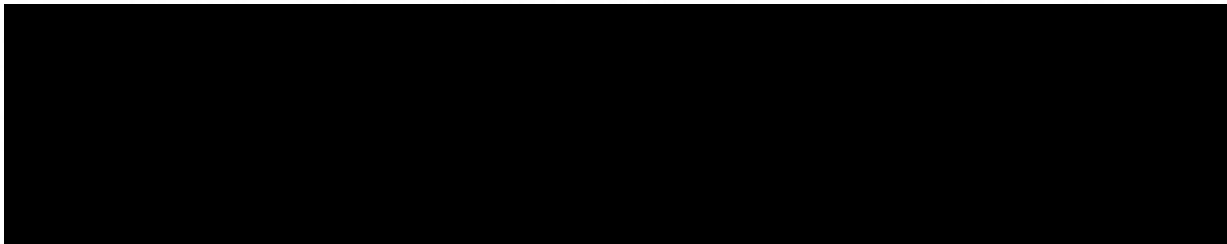
오는 11월초 지령1천호를 맞는 <인권하루소식>의 발간 취지와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 목적을 더욱 뚜렷이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고민 중입니다. 이에 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10월 10일까지 사무국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재정보고
(97년 8월 16일 - 9월 15일)

전기이월: -645,060원

| 수 입 | | 지 출 | |
|--------------|-------------------|--------------|-------------------|
| 회비 | 2,597,000 | 활동비 | 3,270,000 |
| 구독료 | 2,785,400 | 발송비 | 624,610 |
| 사업수익 | 802,890 | 사무비품 | 111,370 |
| 기타수익 | 200,000 | 사무실유지 | 793,910 |
| 상환금 | 1,000,000 | 자료구입 | 56,000 |
| | | 식대(야근) | 200,000 |
| | | 전화요금 | 943,926 |
| | | 사무기기 | 339,300 |
| | | 복사비 | 568,440 |
| | | 기타 | 378,700 |
| 수입총액: | 7,385,290원 | 지출총액: | 7,286,256원 |
| 최종결산: | -546,026원 | | |

<8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운영·자문위원 여러분, 밀린 회비 없으세요?

줄곧 보내주시는 회비로 사랑방이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보내주시는 회비는 위에서 밝힌 지출 내역대로 쓰여집니다. 회비 지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요.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

